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 일시 | 2021. 11. 26(금) 14:30~

| 장소 | 흥성문화원

| 주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행정문화위원회)



## | 목 차 |

I. 토론회 개요 및 세부계획 .....	5
II. [발 제]	
홍성 원도심과 충남혁신도시 간의 상생발전 전략 .....	7
III. [토 론]	
1. 주민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지원 .....	21
2. 관광을 통한 홍성 원도심과 충남혁신도시 간의 상생발전 모색 방안 .....	27
3. 원도심 상생발전 방안 .....	33
4. 홍성의 과거, 현재, 미래관광산업 .....	41



#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의 정 토 론 회

##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11. 26.(금) 14:30 ~ 17:00
- 장 소 : 흥성문화원 공연장(1층)
- 주 제 :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 유튜브 생중계, 녹화영상 홈페이지 및 유튜브 게시

## □ 세부계획(안)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30	30'	<안내 및 명부 작성>	출입명부 작성, 체온측정 등
14:30	14:3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김충훈 전문위원
14:35	14:40	05'	○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이종화 의원
14:40	14:45	05'	○ 축사	홍문표 국회의원,
14:45	14:50	05'	○ 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14:50	15:10	20'	○ 주제발표	오용준 박사
<b>자리 정돈(05') 후 토론회 진행 ※ 좌장: 이종화 의원</b>				
15:15	16:55	40'	○ 지정토론	토론자 전체(각 10분)
16:55	16:15	20'	○ 종합토론	토론자 상호 간
16:15	16:30	15'	○ 자유토론	참여자 전체
16:30	16:45	15'	○ 정리 및 폐회	좌장(이종화 의원)



발제 1

# 홍성 원도심과 충남혁신도시 간의 상생발전 전략

오 용 준 박사(충남연구원)





# 홍성 원도심과 충남혁신도시 간의 상생발전전략

2021.11.26.

- I. 문제인식
- II. 여건 진단
- III. 상생발전전략
- IV. 과제 종합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yjuno@cni.re.kr

## I. 문제인식

- 01. 상생발전 시나리오
- 02. 상생발전 전제

# 01 문제인식 상생발전 시나리오

## ■ 논의배경 및 목적



# 02 문제인식 상생발전 전제

## ■ 상생발전의 전제

### ① 다른 지역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상생발전 추구

- 상생발전이란 복수의 지역 간에 상호이익을 발생하면서 진화하는 과정을 의미  
→ 한 지역의 성장이 다른 지역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공생발전을 추구해야

### ②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발전목표 설정

- 충남혁신도시와 원도심 간 상생발전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완성에 기여하도록 설정  
→ 충남혁신도시가 완성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기능을 보완하며 연계협력해야!!

### ③ 충남혁신도시 조성효과 극대화

- 충남혁신도시의 긍정적 효과(지역인재 채용, 전략산업 육성, 산·학·연 협력 지원 등) 극대화
- 충남혁신도시의 부정적 영향(원도심 공동화) 최소화

충남혁신도시와 원도심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향 제시

## II. 여건 진단

01. 인구변화추이
02. 공간구조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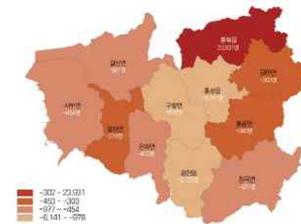
### 01 | 여건 진단 인구변화추이

홍성 원도심과 충남혁신도시 간의 상생발전전략

#### ■ 인구감소경향

홍성군은 신도시 인구 유입 초기부터 2016년까지 인구 증가, 2016년 이후 인구 정체

- 내포신도시 인구유입 본격화 시점에서 지금까지 홍북읍 제외한 모든 읍면이 총량적 인구 감소 경험, 청장년층 대폭 감소
- 홍성군은 최근 3년 간('18~'20년) 인구증가율 -0.49%, 고용증가율 -0.05%, 주간인구 증가율 2.51%('10~'15년)로 성숙·안정형 도시



지역	'12~'20년 인구 변화(명)
홍성읍	-6,141
홍북읍	-2,125
홍북읍	23,931
금마면	-303
홍동면	-340
장곡면	-501
유항면	-463
결성면	-378
서부면	-454
갈사면	-561
구항면	-978

연령대	2012년(명)	2020년(명)	증감(명)
계	44,373	38,232	-6,141
0-4세	2,201	928	-1,273
5-9세	2,593	1,530	-1,063
10-14세	3,258	2,005	-1,253
15-19세	3,354	2,336	-1,018
20-24세	2,733	2,754	21
25-29세	2,277	2,120	-157
30-34세	2,991	1,575	-1,416
35-39세	3,701	2,008	-1,693
40-44세	4,376	2,623	-1,753
45-49세	3,615	3,484	-131
50-54세	3,599	3,470	-129
55-59세	2,615	3,313	698
60-64세	2,003	2,941	938
65-69세	1,433	2,223	790
70-74세	1,472	1,798	326
75-79세	1,123	1,302	179
80-84세	625	1,026	401
85세 이상	404	796	392

03/16

# 02 | 여건 진단 공간구조변화

거리-조락(distance-decay)모형 기반 인구밀도경사함수

$$D_x = f(x) \quad D_0: \text{도심으로부터 거리 } x \text{인 지점의 인구밀도}$$

$$D_x = D_0 \cdot e^{-gx} \quad x: \text{도심으로부터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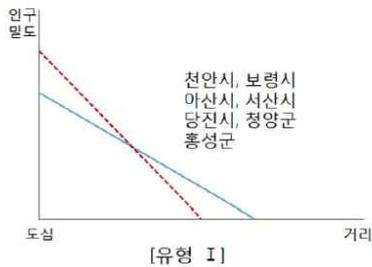
$$\ln D_x = \ln D_0 - gx$$

## ■ 인구밀도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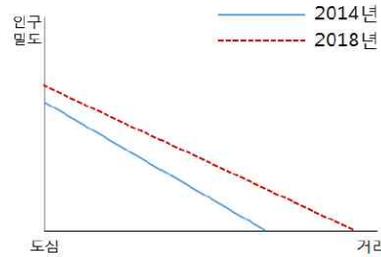
홍성군은 압축도시로 성장 중이나 도심 외곽지역의 성장관리 및 농촌소멸방지 요구

- 홍성군은 도심인구밀도가 증가하면서 인구밀도 경사도 절대값이 증가 →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쇠퇴
- 홍성읍은 도심인구밀도가 증가하면서 인구밀도 경사도 절대값이 감소 → 시가지가 외연적으로 확산

홍성군 공간구조 변화(도심 증가, 외곽 감소)



홍성읍 공간구조 변화(도심 증가, 외곽 증가)



구 분	도심 인구밀도( $D_0$ )			인구밀도 경사도( $g$ )		
	2005년	2015년	변화량	2005년	2015년	절대값 변화
홍성군	3,345.3***	4,418.8***	1,073.5	-0.0532*	-0.0813**	0.0281

주: \*\*\* 유의수준 1% 이하, \*\* 유의수준 5% 이하, \* 유의수준 10% 이하

구 분	도심 인구밀도( $D_0$ )			인구밀도 경사도( $g$ )		
	2014년	2018년	변화량	2014년	2018년	절대값 변화
홍성읍	4,582.9***	5,092.5***	509.6	-0.9825**	-0.5554***	-0.027

주: \*\*\* 유의수준 1% 이하

## Ⅲ. 상생발전전략

01. 정주환경격차 해소
02.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03. 연계교통망 확충
04. 문화·관광협력기반 구축
05. 상생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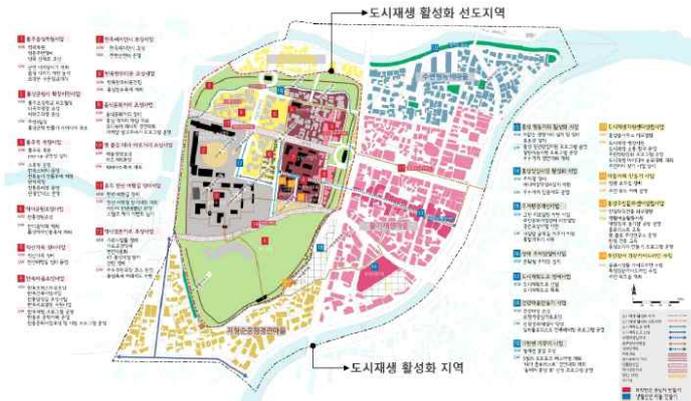
# 01 | 상생발전전략 정주환경격차 해소

## ■ 원도심 중심기능 강화

원도심 기능 강화가 관건, 도시재생사업 + α 필요

- OECD, 2014, Compact City Policies : Korea : ① 내부충진식 개발(+성장관리방안), ② 대중교통 연계, ③ 생활서비스 및 직업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수요 많은 간선축(내포, 광천 등)에 급행노선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 통해 대중교통부담률 제고(2017년 15.2%)

홍성읍 도시재생사업 구상



홍성군 교통망



0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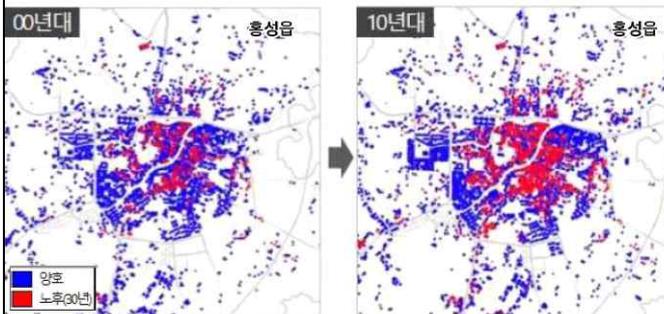
# 01 | 상생발전전략 정주환경격차 해소

## ■ 원도심 중심기능 강화

체류인구, 관계인구 유입 위한 집객인구 발전전략 추진

- U+J턴 등 이주에 의한 정주인구 외 관광을 통한 체류인구 확대, 지방과 다양한 관계를 가진 관계인구 정책 추진  
→ '20년 홍성군 주간활동인구는 통근통학인구(5,171명), 외국인(2,340명), 기숙 대학생(2,974명), 관광객(2,301명) 등 12,786명 수준
- 체류인구 확대를 위한 목포 관창아 마을(빈집을 활용해 마음의 휴식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공동체마을), 서울 청년인생 설계학교, 로컬라이즈 군산(지역재생 창업경진대회, 폐건물 리모델링 통해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마이홈 청년주거지원(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 등),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전문 코디네이터와 멘토단 구성 지원) 등 검토

홍성읍 빈집 증가추이



관창아 마을의 기능

심 | 관창아, 세이도 실패해도

관창아는 나

관창아는 일상

심 | 관창아, 서해 앞마을도

관창아는 여행

관창아는 우리

심 | 관창아, 함께 살아도

관창아는 공동체

관창아는 혁신

자료 : dontworryvillage.com

0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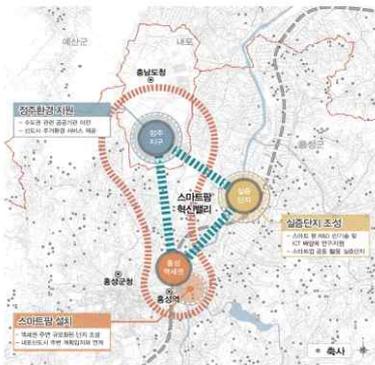
## 02 | 상생발전전략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 특화산업 육성 및 자족성 확보

#### 혁신도시와 기능 분담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및 자족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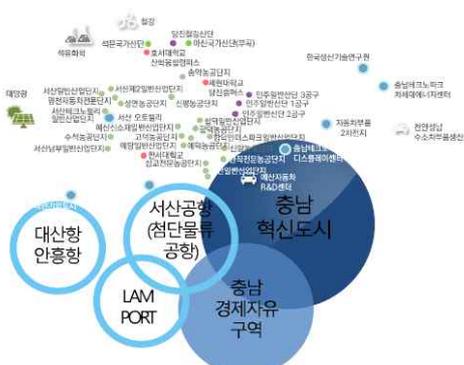
- 환경회복산업이자 미래형 농축산 푸드테크산업인 배양육(In Vitro Meat)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농축산 푸드테크 지식단지 조성
- 충남혁신도시의 권역 단위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자리 1만개 창출(계획입지 230만㎡ 소요)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홍성군의 계획입지 공급 위해 공업용수도사업(20,000㎡/일 천안~진천 송수관로 및 가압시설 설치) 재정사업 추진

미래형 농축산 바이오 푸드테크 혁신거점구상



자료: 홍성군, 2019, 홍성발전2020 미래전략시계계획

충남혁신도시의 기업화 공간발전전략



자료: 오용준 외, 2021,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방향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07/16



자료: Nicola Jones, 2010, Food: A Taste of things to come? Nature 463: 752-3

## 02 | 상생발전전략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홍성 원도심과 충남혁신도시 간의 상생발전전략

### ■ 기업 지원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기업입지 여건 개선

충남혁신도시 투자선도지구와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하고 입차료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입지여건 개선

- \*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한 입차료 지원과 성과 검증 등을 통해 기업입지 및 운영비용 절감



#### 기업활동 지원

규제 샌드박스로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고, 내포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기업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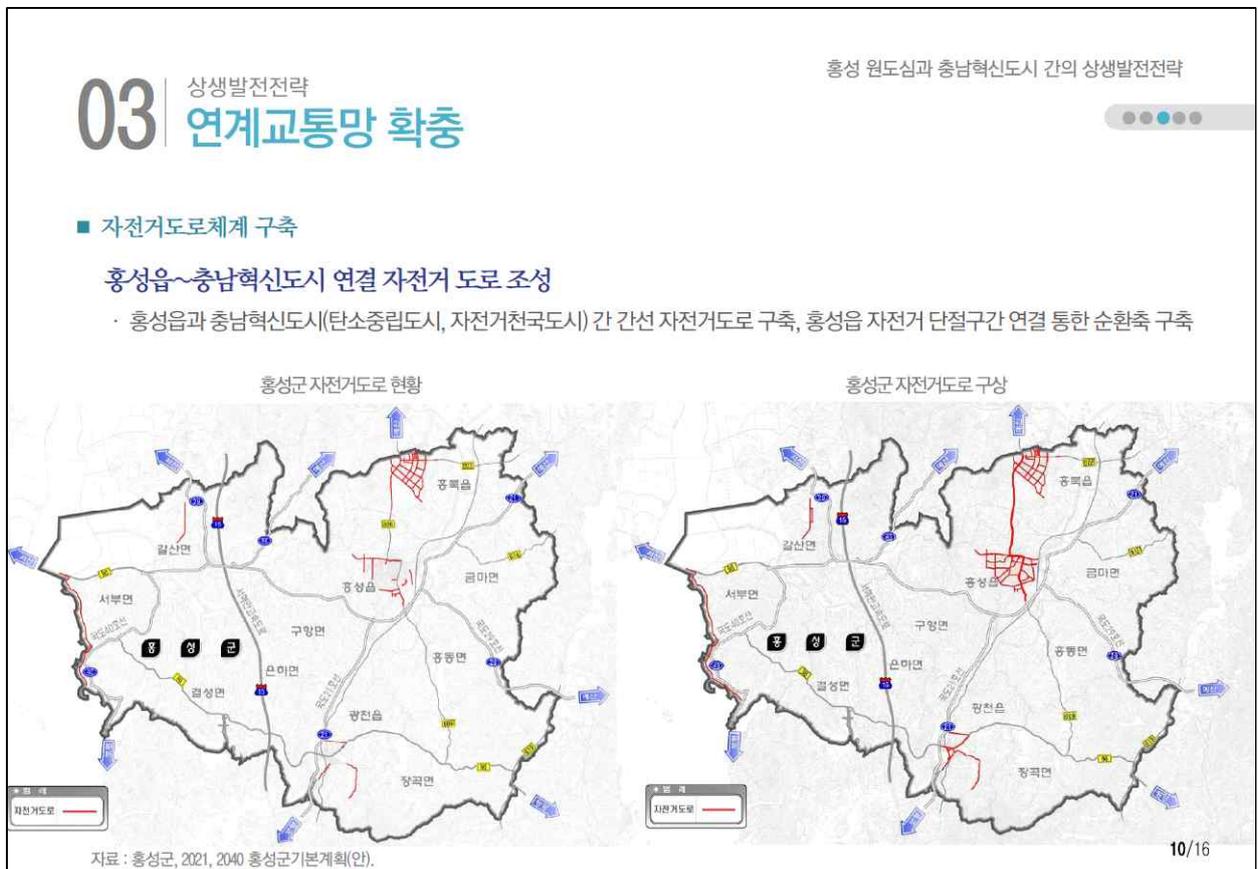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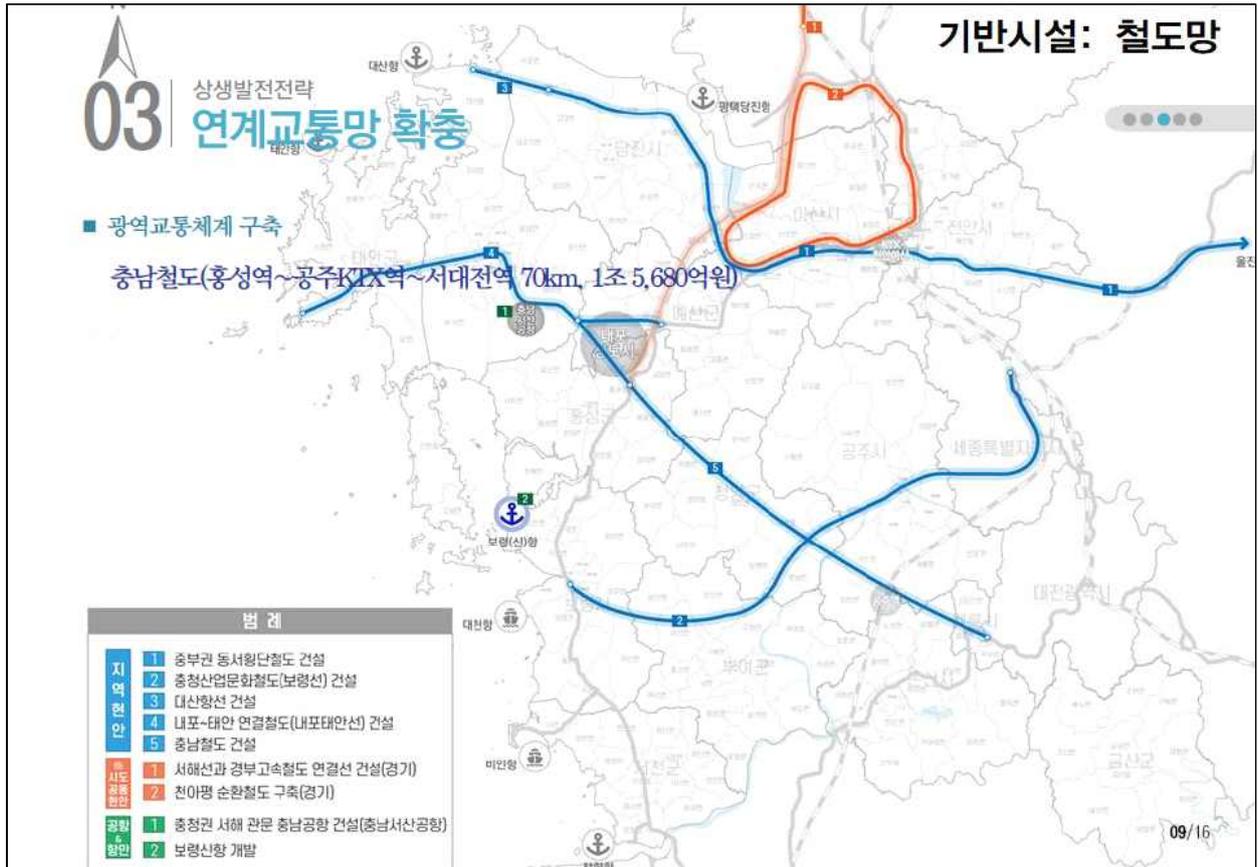
- \*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실증, 해안선 감시 및 도서지역 긴급 물품 배송 드론 비행 실증 등 충남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충청남도 주도로 이전기관, 지역대학, 기업 등 혁신도시 발전주체 간 정보 공유 및 교류 지원 등 추진

- \* 충청남도 스마트 건강주거 시범사업, 혁신도시 선도 및 특화모델 개발 7대 분야 19개 스마트도시 서비스 추진





# 04 | 상생발전전략 문화·관광협력기반 구축

## ■ 원도심과 충남혁신도시 연계 관광협력사업

### 역사문화자원을 선형이나 점 형태로 연결

- 관광자원 분포지역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 및 자원 개발로 국비 지원이 비교적 용이한 사업 추진  
→ 홍주읍성 도로 순환로 개설, 홍주천년여행길, 홍성읍~혁신도시 자전거도로 연결

### 관광객 이동패턴에 따라 역사문화·관광서비스 공급

- 관광객 이동흐름을 중심으로 홍성~내포~예산 간 연계협력사업(예. 시티투어) 추진
- 홍성군의 역사·문화자원 활용한 연계협력사업(관광안내, 셔틀교통편 제공, 쿠폰제 실시, 문화관광답사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프로모션과 관광역량 강화

- 천년의 매력을 간직한 홍주 원도심이 정비되는 단계에서 공동마케팅 체계 구축
- 내적 관광역량을 키우기 위한 역사문화관광포럼 개최 및 아카데미 사업 공동 추진

# 05 | 상생발전전략 상생협력체계 구축

## ■ 상생발전거버넌스

### 충남혁신도시 상생발전기구 구성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협의체, 혁신도시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등 구성·운영, 상생발전기금 조성 의무화(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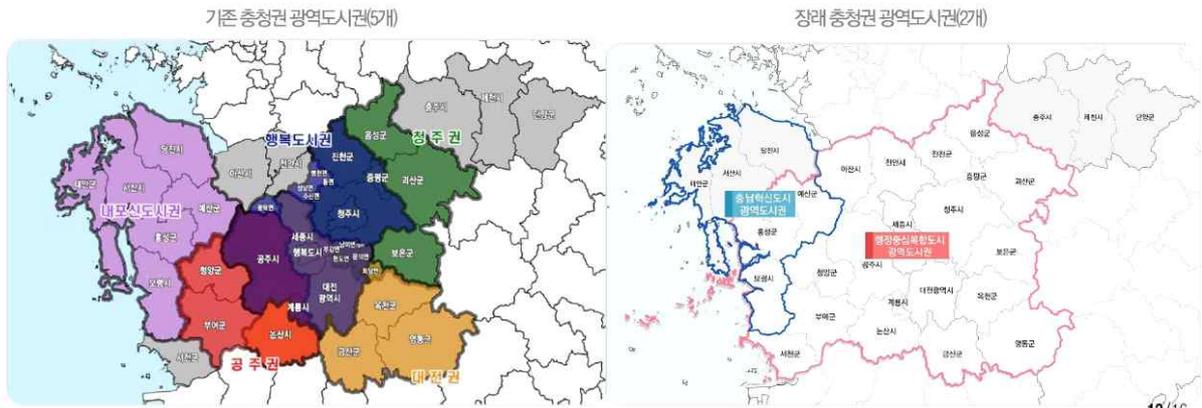


# 05 상생발전전략 상생협력체계 구축

## ■ 광역도시권

### 내포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 육성을 통한 동반성장기반 확보

-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 확대로 흥성이 포함되어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활용가능성 증대
-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규모 개정 추진)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기반 확보, 2022년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 변경 및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착수 예정



# 05 상생발전전략 상생협력체계 구축

## ■ 상생발전사업 작동기제

### 주변지역과의 동행

- 지역인재** 혁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인재채용제 강화, 지역에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채용설명회 통한 일자리 알선
- 공동이용** 공공기관 시설 개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오픈캠퍼스 운영을 통해 대학과의 협력과 실무지식 확산
- 혁신클러스터** 핵심기능군 및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전략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구축, 주변 시·군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연계



# 05 | 상생발전전략 상생협력체계 구축

## ■ 상생발전사업 예시

공공기관 연계	문화관광	사회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li> <li>· 공공기관 연계 기업유치 및 투자실행 가속화</li> <li>· 이전공공기관 연계형 원도심 마을리빙랩 특화사업</li> <li>· 공동혁신도시 연계 오픈랩 사업 추진</li> <li>·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제도 개선)</li> <li>·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li> <li>· 새로운 가치 창출로 지역문화성장</li> <li>· 6대 전략 문화콘텐츠(음악, 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예술테이먼트) 집중 육성</li> <li>· 광주 문화자원과 남해안 관광자원의 연계 활용으로 관광성장촉진</li> <li>·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li> <li>· 브랜드 제고 위한 문화·예술·관광 명소도시 조성</li> <li>· 영산강 유역미항문화권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공간 활용형 원도심 상권활성화</li> <li>· 어린이 테마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li> <li>· 지역맞춤형 이전기관 직원 여가지원사업</li> <li>· ICT 기반 사회적약자 보호시스템 마련</li> <li>· 지능형 광역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li> <li>· 아동 및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 서비스 강화</li> <li>·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li> <li>·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li> <li>· 시민안전인프라 확충 및 재난예방 대응역량강화</li> </ul>									
산업경제	인력양성										
<table border="0"> <tr> <td> <b>IC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전남 첨단 실감콘텐츠산업밸리 조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융 복합신산업 호남권 거점거점 조성</li> </ul> </td> </tr> <tr> <td> <b>R&amp;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기반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파급력 확대를 위한 리빙랩 및 시범단지 조성</li> </ul> </td> </tr> <tr> <td> <b>농생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다움 회복</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자립기반 강화</li> </ul> </td> </tr> <tr> <td> <b>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산업혁명 대응 지역대표산업 육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중소기업생태계 조성</li> </ul> </td> </tr> <tr> <td> <b>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 벤처생태계 조성</li> </ul> </td> <td></td> </tr> </table>	<b>IC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전남 첨단 실감콘텐츠산업밸리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융 복합신산업 호남권 거점거점 조성</li> </ul>	<b>R&amp;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기반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파급력 확대를 위한 리빙랩 및 시범단지 조성</li> </ul>	<b>농생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다움 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자립기반 강화</li> </ul>	<b>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산업혁명 대응 지역대표산업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중소기업생태계 조성</li> </ul>	<b>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 벤처생태계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gether 산학협력 및 기관 맞춤형 인재 육성</li> <li>· 광주-전남 혁신도시 산·학·연 융합 오픈캠퍼스 확대 운영</li> <li>· 광주-전남 혁신도시 연관기업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li> <li>· 매력적인 직업교육 육성</li> <li>· 창업지원센터 설치</li> <li>· 지역대학에 4차산업 전문교육과정 설치</li> <li>·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li> <li>·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li> <li>· 지역인재 취업지원</li> <li>· 연령·계층별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시행</li> </ul>
<b>IC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전남 첨단 실감콘텐츠산업밸리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융 복합신산업 호남권 거점거점 조성</li> </ul>										
<b>R&amp;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기반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파급력 확대를 위한 리빙랩 및 시범단지 조성</li> </ul>										
<b>농생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다움 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자립기반 강화</li> </ul>										
<b>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산업혁명 대응 지역대표산업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중소기업생태계 조성</li> </ul>										
<b>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 벤처생태계 조성</li> </ul>											

자료 : 산업연구원, 2021,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업사업 선정(안).

## IV. 과제 종합

# 01 | 과제 종합 상생발전과제 종합



## 원도심 중심기능 강화 및 연계교통망 확충

- 내부충진식 개발, 대중교통 연계, 생활 서비스 및 직업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체류인구, 관계인구 유입 위한 집객인구 발전전략 추진
- 광역교통망으로 충남철도 건설
- 연계교통망으로 홍성읍~충남혁신도시 간 자전거도로 조성 등



## 특화산업 육성 및 문화관광협력기반 구축

- 미래형 농축산 푸드테크산업인 배양육 산업 육성
- 충남혁신도시의 권역단위 자족성 확보 위한 계획입지 공급, 공업용수도사업 추진
- 기업입지 여건 개선, 기업활동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원도심과 충남혁신도시 연계 관광협력 사업 추진 등



## 상생협력체계 구축

- 충남혁신도시 상생발전기구 구성
- 상생발전기금 조성
- 충남혁신도시 광역도시권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도시권 육성
-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 변경, 충남 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2022)
- 지역인재채용제 강화 등 상생발전사업 추진

공동발전목표를 공유하고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 통해  
홍성 원도심과 충남혁신도시의 상생발전 유도

감사합니다.



토론 1

# 주민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지원

이 경 진 교수(공주대학교 조경학과)





## 주민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지원

이경진 교수(공주대학교 조경학과)

원도심과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반깁니다. 몸이 아픈 병 이야기는 소문을 낼수록 명의와 처방을 찾을 수 있듯이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방안도 주민들이 자주 이야기하고 고민하면 그 해결방안이 찾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이 내포 신도심에 비하여 쇠락하는 요인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건물 노후화, 기반시설 노후, 공공공간 노후, 소비패턴 및 생활패턴 변화, 상권 쇠락, 일자리 부족, 교육여건 변화, 부동산 가치 하락, 공실률 증가, 인구 감소, 공동체 갈등, 빈부격차, 복지격차, 문화격차 ... 등등 부정적 악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복잡한 요인 중 어느 하나를 처방한다고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고 복지부동한다면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다위험요소(Multi-risk)는 종합해결책(Total-solution)으로 접근 한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본 토론회 발제자인 충남연구원 오박사님께서 이 방안을 오늘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안해 보려 합니다.

상생발전 원도심 활성화는 주민과 행정의 협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는 주민 당사자들의 실행역량과 충청남도 및 홍성군의 정책지원 확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민간

투자자나 개발업체의 수익성 구조 개발사업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 당사자들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도 행정 못지않게 서로들 입장차이가 있어 장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 세입자, 업종별, 세대별, 입지별, 원도심, 신도심, 주거지, 상가, 농가 등등 여러 입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도심 문제의 핵심이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지만 그 해결방안은 상업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생활권 전체에 있습니다. 흥성읍 면적으로만 보면 상업지역보다 주거지역이 몇 배 엄청나게 넓습니다. 인구도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마당이 구도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과 한 배를 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축하여 운영되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원도심 구도심 상생 발전을 위한 ‘주민 협력 네트워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담운영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도심 주민들도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상생발전 위하여 여러 주민 단체가 진정성 있게 모여야 하고 행정과 협력하기 위하여 역량이 있는 강력한 주민 네트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참여에 주민투자도 같이하기를 희망합니다. 준비된 주민이 혁신역량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도심 정책지원 확대입니다. 이미 도시재생사업 등 중앙부처사업, 충청남도 특별사업, 흥성군 자체사업으로 정책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업형 지원확대로서 실제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데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수요에 근거하기 보다는

단기적 사업 집행에 주민도 행정도 힘들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적극적이고 실행력 있는 제도적인 방안과 재원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홍성읍의 미집행도시계획의 선집행으로 도시구조를 현대화하고, 공공공간 활용 원도심 활성화, 주민 요구 시설의 확충, 개별 개발행위(집짓기, 증개축) 규제 완화, 민간 상가 및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체계 등으로 특별 도시관리제를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형 빈점포/사무실 임대, 노포상점 맥잇기, 청소년 교육사업, 계층별 문화복지사업 등을 더욱 더 활성화하여 지원사업의 주민체감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역량 있는 ‘주민 네트워크 운영조직’이 ‘혁신 행정체계’와 협업하여 상생발전 원도심 활성화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토론 2

# 관광을 통한 흥성 원도심과 충남혁신도시 간의 상생발전 모색 방안

최인호 교수(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관광을 통한 홍성 원도심과 충남혁신도시 간의 상생발전 모색 방안

최인호 교수(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관광협력 사업 추진

- 관계인구란 관광도 거주도 아니지만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2016년 일본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임. 즉,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 유대형 제3의 인구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특정 지역과 정기적·지속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는 이들을 지칭함. 지역에 대한 팬덤의 개념으로 보기도 함
- K-Pop을 활용한 한류관계인구 확장
  - 지역에 대한 애착도 측면에서 관계인구를 팬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를 감안하면 홍성은 K-Pop 팬들에 의한 한류팬덤 구축이 가능함.
  - 국제청소년 K-Pop 축제 개최, K-Pop 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K-Pop 커버영상 컨테스트 개최(홍성 12경 및 내포 주요자원 배경) 등
- 관내 대학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프로젝트 기반 수업 운영을 통한 지역관광 현안문제 해결
  - 여행으로 지역만들기, 지역문화예술 아카데미 등

- 포용관광 도시 이미지 구축

- 열린관광 환경 조성, 장애아 가족 대상 관광행사 개최, 다문화 관광활동 지원, 스마트폰 중독 치유 관광활동 지원, 문화관광형 청년창업 지원 등

- 연계형 테마관광 사업 전개

- 내포문화 연계 테마관광 사업 추진

- 내포문화권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개별사업이 파편화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내포란 명칭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 연계형 테마관광 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역사적 사건 등에 기반한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다양한 상품개발, 홍보전개 등을 전개함.

- 관방유적 네트워크 사업

- 국내 관아도시가 참여하는 공동브랜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문 학술연구, 교류 및 통합 행사 개최,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등을 추진함.
- 스코틀랜드 성곽협회(The Scottish Castles Association), 일본 성곽협회(公益財団法人日本城郭協会) 등과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내포문화권 관방광문화 자원의 세계화를 도모함.

- **근대 한국불교 성지 네트워크 사업**

- 내포지역에서 경허 스님과 수제자(수월 음관, 혜월, 만공 월면 스님)들에 의해 근대 한국불교가 일어남. 이중 수월 음관 스님이 홍성출신임. 근대 한국불교 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 작업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근대 우리나라 주요 종교의 시원지로서의 내포지역을 포지셔닝하고 네트워크형 종교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

- **라이프스타일 관광 활성화**

- **최근 들어 지역만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로컬에서 현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하는 일상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홍성 및 내포신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이 드러나는 공간 및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음.
- **근대 공공기억자산 찾기 추진**
  - 공공기억(public memory)이란 특정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수준의 평가가 내려지거나 그런 수준의 의미가 부여된 기억을 의미하며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공공기억자산의 시간적 범위를 특정짓기 쉽지는 않으나 국가등록문화재 제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조선이 개항을 한 1876년부터 현시점에서 50년 전까지의 시기

로 볼 수 있음.

- 군내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홍성군민들의 공공기억을 찾아내어 유·무형의 형태로 아카이브화(가칭 ‘新홍성택리지’)하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즈형 활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화 라이프스타일 공간 확충**

- 홍성을 대표했던 거리 ‘홍고통’ 활성화를 위해 과거를 추억하는 체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음식 특화상점과 청년 푸드트럭 등의 유치로 통해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함.
-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홍성 출신 유명인물들을 활용한 벽화거리 및 버스킹 공간 조성을 통한 방문매력 증진을 도모함.

토론 3

원도심 상생발전 방안

정 윤 선 박사(산업연구원)





## 1. 혁신도시 성장

- 국토부는 지난 8월 2021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를 통해 정주인구 22.9만명, 공동주택 784,328호, 어린이집 278개소 등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현황을 발표

### 【정주인구 현황】

- (인구 증가) 혁신도시 인구는 '21.6월 말 229,401명(계획인구 26.7만 명의 85.6%)으로, '17년 말(174,277명) 대비 55,124명(31.6%)이 증가하였고, '20.6월 말 대비는 15,584명(7.3%) 증가하였다.

혁신도시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1.6월 말 기준)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천명)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천명)	
	계획	달성		계획	달성
부산	7	7.4 (105.7%)	충북	39	29.9 (76.7%)
대구	22	18.7 (85.0%)	전북	29	29.0 (100.0%)
광주·전남	50	38.4 (76.8%)	경북	27	22.7 (84.1%)
울산	20	19.9 (99.5%)	경남	38	32.5 (85.5%)
강원	31	26.2 (84.5%)	제주	5	4.8 (96.0%)

### 【정주시설 공급 현황】

- \* (연도별 공동주택 누적공급)

65,106호('17년) → 77,937호('20.6) → 84,328호('21.6)

- \* (초중고 학교수 누적) 39개('17년) → 46개('20.6) → 47개('21.6)

- \* (유치원 누적) 34개('17년) → 41개('20.6) → 42개('21.6)
- \* (어린이집 누적) 227개('17년) → 268개('20.6) → 278개('21.6)
- \* (편의시설 누적) 5,415개('17년) → 7,125개('20.6) → 7,657개('21.6)

《 복합혁신센터 추진현황 》

추진 상황	준공완료 ('21.1월)	추진 중	
		준공 예정('22년)	착공예정('21.9월)
혁신 도시명 (11개소)	1개소	8개소	2개소
	전북완주	전북전주, 제주, 경남, 경북, 울산, 강원, 충북, 대구	부산, 광주·전남 ※ 설계 중

- o 2019년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고 2018년부터 진행된 혁신도시시즌2 이후 혁신도시 인구, 입주 기업, 지역인재 채용이 증가 추세

〈10개 혁신도시 현황〉

(2019년 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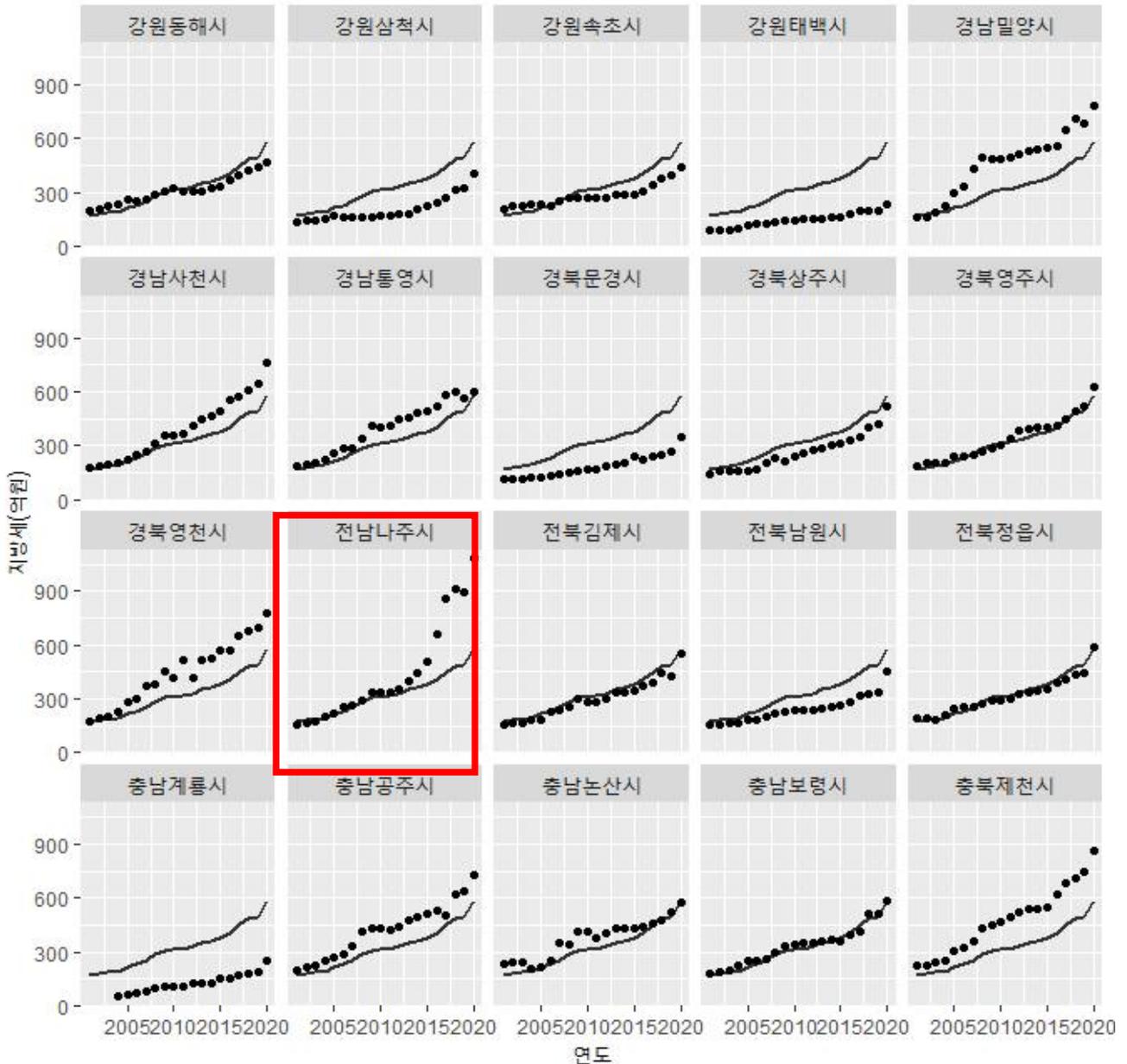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개 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주민등록인구 (명)	입주기업 (개 업체)
부 산	13	35.7	7,522	197
대 구	10	28.7	17,671	148
광주 전남	16	24.6	32,478	391
울 산	9	27.2	19,308	45
강 원	12	25.2	23,463	48
충 북	11	27.4	25,937	55
전 북	12	25.5	26,929	346
경 북	12	25.8	21,811	43
경 남	11	22.5	24,849	434
제 주	6	21.7	4,748	0
계	112	25.9	204,716	1,707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2020.7.30.

## 2. 지방세수의 증대효과

□ 혁신도시 출범으로 인한 지방세 세수증가분을 유사한 지자체의 지방세 증가추세와 비교

[그림] 시-라 유형 20개 지자체의 지방세수 추이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결산기준) 시-라 급 20개 시지역 지방세 추이

[표] 시-라 유형 20개 지자체의 2014년 전후 기간 지방세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자체명	출범전	출범후	세수 증가분	증가율
전남 나주시	44,317	87,832	43,516	98.2
강원 동해시	32,372	44,646	12,274	37.9
강원 삼척시	22,186	36,366	14,179	63.9
강원 속초시	28,555	42,162	13,607	47.7
강원 태백시	17,037	21,645	4,607	27.0
경남 밀양시	59,459	71,166	11,708	19.7
경남 사천시	48,550	73,623	25,073	51.6
경남 통영시	52,032	62,870	10,838	20.8
경북 문경시	20,164	27,861	7,697	38.2
경북 상주시	31,508	42,801	11,293	35.8
경북 영주시	38,580	52,060	13,480	34.9
경북 영천시	57,951	74,037	16,086	27.8
전북 김제시	32,329	42,699	10,370	32.1
전북 남원시	24,378	32,696	8,317	34.1
전북 정읍시	34,413	45,174	10,761	31.3
충남 계룡시	12,981	18,018	5,037	38.8
충남 공주시	49,036	67,801	18,765	38.3
충남 논산시	45,087	56,934	11,847	26.3
충남 보령시	39,591	57,185	17,594	44.4
충북 제천시	52,983	77,868	24,885	47.0
19개 시 평균	36,800	49,874	13,075	36.7

※ 자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연감(결산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연구원이 산출

- 혁신도시가 출범한 나주시에서 지방세 수입이 98.2% 증가한 반면, 나머지 19개 시에서는 평균 36.7% 증가하여 혁신도시로 인한 세수증가 존재

[표] 세수증가분 중 혁신도시로 인한 연간 지방세 증가분  
(단위 : 백만원, %)

세수증가분	나주시 증가율	19개 시 증가율	추가 증가율	혁신도시로 인한 세수증가분
43,516	98.2	36.7	61.5	26,762

### 3. 성과의 공유 및 확산

- 어떻게 공유하고 확산할 것인가 ?

□ **신도시 개발로 증가된 인구, 정주환경, 기업, 세수의 이익을  
지역내에서 어떻게 공유하고 확산할 것인가 ?**

○ 증가된 지방세수는 신도시 관할 시군 뿐 아니라 도내 타 시군에도  
사용하도록 규정

□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서는 발전기금  
을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  
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  
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 1) 원도심 발전기금 조성

□ 흥성과 예산의 증가된 지방세수의 일정부분을 두지역 원도  
심 발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기금 조성

○ 신도시로 인해 증가된 세수를 원도심 활성화의 재원으로 사  
용하여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통한 흥성-예산 공동  
발전 기금을 마련

○ 흥성과 예산이 내포 신도시 혹은 혁신도시 출범이후 지방세  
증분을 산출할 수 있으며, 지방세 증분은 2개 지자체가 상  
이할 것으로 예상

- 혁신도시특별법 49조에서 정한 바대로 증가된 지방세수의 일정비율을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여 예산-홍성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구증가 효과 기대

## 2) 상생협력 약속이 필요

- 홍성과 예산의 증가된 지방세수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군, 군의회, 그리고 홍성군 군의회의 합의가 필요
-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로 묶어진 하나의 지역이므로 두 지역간 상생협력시 국가사업 및 국비확보, 지역사업 확보 등이 가능하지만, 서로 견제할 경우, 민원으로 인해 국가사업 유치 어려움
- 원도심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시행할 기금 사업을 두 지자체간 협의로 정하거나, 기금을 균등배분하여 양 지자체가 스스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활용
- 두 지자체간 공동기금 조성 및 기금사업 시행이 주관적으로 불리하거나 손해라는 주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의회의 동의를 받다 시행
-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비로소 가능한 현실임
- 원도심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토론 4

# 홍성의 과거, 현재, 미래관광산업

신 영 식 재무국장(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 홍성의 과거, 현재, 미래관광산업

신영식 재무국장(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 재무국장 신영식입니다.

우선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초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발제자이신 충남경제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원님의 주제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 번째 주제인 “상생발전 전략” 특히 문화, 관광 협력 기반 구축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오늘 저의 토론 주제는 “홍성의 과거, 현재, 미래관광산업” 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관광공사에서 공개한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즌 2의 서산 편을 보셨나요?

“머드 맥스” 라는 타이틀인데요, 서산의 대표적 관광명소를 민요와 K 힙합을 결합해 만든 영상으로 9월 공개되자마자, 10일 만에 1,000만 뷰 돌파, 11월 현재 3,472만뷰를 넘어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정도면 (대한민국 인구통계기준(2021년 06월) 51,672,000만 명 중 약 70%) 가까이가 영상을 본 건데요.

실로 엄청난 흥행 대박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에 나온 장소를 살펴보면 우리도 한 번씩은 가봤고, 지나쳤던 곳인데 이렇게 멋진

영상미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포장을 해놓으니 실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실제로 가로림만에 국회의장, 여당 당대표 등 정치인의 발길이 이어지기도 하고, 대통령도 “갯벌의 홍보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더라구요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장소를 살펴보면 내가 살고 있는 홍성에도 다 있는 곳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은 가봤고, 지나쳤고,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홍주읍성, 남당리, 또는 죽도갯벌, 천년고찰 고산사 등은 머드맥스의 촬영지와 흡사하거나, 나름 더 의미있는 장소이고 특히 역사적 가치나, 인물들에 대하여는 훨씬 더 유리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성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홍보영상이 홍성을 중심으로 촬영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토론의 본론으로 돌아가면 홍성이라는 곳은 역사적, 예술적인 인물들이 많은 곳이며, 천주교 순교지, 용봉산과 천수만 바다 그리고 얼마 전 새로 지정된 최적의 관광 충남내포문화숲길등 최적의 관광자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첫번째로 과거로의 여행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되는데요.

김좌진장군, 한용운선생, 이응노화백등 인물들의 생가지체험, 그리고 홍주읍성, 의사총천주교 순례지 등과같은 비극적 역사적 장소나, 재난,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현장을 돌아보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다크투어리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현재로의 여행이라함은 편하고, 쉽고, 색다르고, 먹거리가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국가숲길로 지정받은 내포문화숲길 이라던지, 홍성군의 유일한 유인도 죽도둘레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의 여행 특징은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해바다와 내포 신도시주변이라는 상징성을 홍보할 수 있음과 동시에 둘레길 주변의 남당항과 같은 먹거리가 풍부하게 장점 일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미래로의 여행은 체험하고, 찾아가는 것을 넘어선 그 이상이어야 할 텐데요. 홍성군이 추진 중인 “홍성복합디지털 스페이스조성” 과 연계한 오감만족 체험여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디어 아트 전시관, 디지털 실감 영상 및 AR / VR / 메타버스 콘텐츠관 에서의 가상현실을 체험하며, K팝 고등학교 등과 연계한, 공연 및 전국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홍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구요.

특히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내포신도시 조성에 의한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어 유동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홍성에는 멋있고, 맛있고, 좋은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광자원을 메스미디어를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홍보를 한다면 우리 홍성도 대기표 받고, 줄서서 입장 하고, 보도 매체에 일명 “대박” 이라는 문구와 같이 “홍성” 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이만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